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개발과 주요 특징

윤옥경* · 유수진**

Developing Process of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Revised in 2022 and Its Key Features

Okkyong Yoon* · Soojin Yoo**

요약: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개발과정과 개발의 방향 및 특징을 중심으로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는 지리, 역사, 일반 사회영역을 통합한 탄력적 환경확대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지리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지식과 이해를 위한 성취기준 외에도 자료와 지리적 기능의 활용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위한 감성을 갖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한편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에서 통합적인 성취기준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즉 지리, 역사, 일반사회별 성취기준 외에 별도의 통합성취기준을 개발하였으나 세 영역의 특성을 고루 반영하기 어려웠다. 향후 초등 지리 영역의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초등지리교육 ‘교수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점검이 필요하다.

주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초등 지리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성취기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newly developed curriculum focusing on the process, direction, and the features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and to explore the future tasks of the curriculum development.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consists of a flexible environment expansion method that integrates geography, history, and general social studies. The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focuses on connecting the achievement standards to the students' lives. In addition to achievement standards fo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t also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use of data and geographical functions and having sensibility for a better place of life. Meanwhile, there were attempts to develop integr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2022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that is, in separation to each achievement standards by geography, history, and general social studies, but it was difficult to evenly reconci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areas.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program of 'preparation for teaching' of elementary geographic education by elementary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Key word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elementary geography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 achievement standards

*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kyoon@cje.ac.kr

** 서울내발산초등학교 교사(Teacher, Seoul Neabalsan Elementary School), sj0701@sen.go.kr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 외적인 요인, 즉 사회의 변화를 맞아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의 변화란 많은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고교학점제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지만, 정보화, 세계화로 대표되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학습자 역량의 함양이 보다 근원적인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라고 하겠다(은지용 외, 2022a; 2022b).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은 이러한 필요에 충실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관련된 여러 주체와 그 입장이 충돌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 교육과정의 역사적 관성이나 흔적은 새롭게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교육과정 개발과정에는 지리교육학에서 관심 있게 연구되는 주제들을 반영하여, 기존 성취기준을 새롭게 바꾸거나 추가한다. 따라서 지리 교육과정에 연결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초등 지리 교육은 교과로서는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고, 역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의 주제 또한 초등 사회과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초등학교 교육은 1학년에서 6학년 까지 6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1~2학년에는 통합교과를 학습하며, 여기에 사회과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된다. 이처럼 초등 지리 영역 교육과정의 개발에 있어서는 초등 교육, 사회과 교육, 통합 교육 등 지리 교육 외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초등 사회과에 대한 비판은 학습 수준과 학습량, 학습 내용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실상 사회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은 초등 지리 영역에도 과제로 부과된다.

초등 교육은 중등 교육과 매우 다른 상황과 맥락을 가지고 있고, 지리가 초등 교육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교육과정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Martin, 2013). 아동들은 새로운 곳에 대해 알아갈 때,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곳과 비교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공간적 확장과 추론의 과정은 어린 나이부터 가능하고, 주변의 어른들, 특히 교사나 부모와 같이 아동과 많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어른들의 조력이나 개입이 이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비계(scaffolding) 전략이 보다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Gersmehl and Gersmehl, 2007). 이처럼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면서 초등 지리 교육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하며, 교사와 아동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였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체계는 크게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기준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은 교사들의 현장 수업을 염두에 둔 안내를 담고 있다. 교육과정은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전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서 저술 과정과 실제 학교 교실에서의 교수·학습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학생들에게 성취된 결과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른 양상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고시는 완결이 아니라 시작한 것이다. 본 논문은 2022 개정 초등 지리 영역의 성취기준 개발 과정과 그 특징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을 탐색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개발 과정 및 절차

교육부 정책연구로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개발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집하였다. 1차적인 의견 수집의 대상은 현장 초등 교사들, 초등 교원 양성기관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수진이었다. 또 교육부 정책연구에 참여한 ‘초등 사회팀 연구원’, ‘지리 영역 공동연구원’들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론, ‘자문단 역할을 한 연구 협력자’의 서면 자문 등을 토대로 성취기준의 선정·수정·확정 과정을 거쳤다.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 수집은 기존 설문조사 및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15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 초등 교원 양성기관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수진은 대면, 비대면(온라인)의 다양한 형식을 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초등 교원 양성기관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교수진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으로서 매우 중요했다. 개발 중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대해 의견의 청취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지리와 관련된 논문작성 및 연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 및 ‘지리’ 정체

성 측면에서 중립성을 가진 교사들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지리 교육 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정책연구에 지리 영역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전문가들로부터 내용 자문을 받았으며, 특히 초·중 지리 교육의 계열성과 범위를 점검하는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초등 사회탐 연구원’의 회의는 최종 확정된 성취기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초등 사회탐 연구원’은 총 7인으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별로 교수 1인, 현장교사 1인, 그리고 팀장 1인으로 구성되었다. ‘초등 사회탐 연구원’ 회의는 2022년 1월 10일의 첫 회의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총 16차에 걸쳐 이루어졌다(은지용 외, 2022b). 회의에서는 자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통해 초등 사회과의 성취기준을 선정하고, 학년별 배열 순서를 결정하였다.

II.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쟁점 및 주안점

1.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쟁점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문헌 및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 내용 수준과 학습량의 적정성이다.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 수준에 비해 어렵고, 학습량도 많다고 인식한 단원은 3학년의 ‘우리 고장의 모습’, 4학년의 ‘지역의 위치와 특성’, 5학년의 ‘국토의 위치와 영역’이었다(배주경 외, 2019a; 배주경 외, 2019b; 배주경 외, 2020; 주형미 외, 2020). 3학년의 ‘우리 고장의 모습’에서는 디지털 영상지도와 백지도로 다루는 학습 내용이 학생들의 기능 수준에 맞지 않았고, 4학년의 ‘지역의 위치와 특성’에서는 학생들이 지도 학습(map learning)과 관련된 용어 및 중심지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5학년의 ‘국토의 위치와 영역’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이나, 우리나라의 영역을 설명하는 기선, 해리 등의 용어가 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을 학생 수준에 적합한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환경 확대법에 따른 지역화 학습이다. 3학년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고장’, 4학년에서는 시·도 단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학습하는데, 이를 학습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 자료의 부족, 지역화 교과서의 부실, 지역별 편차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지역화 학습에 필요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구역에 따른 ‘고장’과 ‘지역’의 범위가 다르지 않아, 공간 범위에 차이를 두어 지역화 학습 내용을 구성하기가 다소 애매하였다. 더욱이 학생들의 생활 범위가 생각보다 좁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육과정이 설정한 범위대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행정구역 단위로 학습 공간이 확장되는 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3학년 학생들이 그린 심상지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근린 수준에서 지역을 표현하고 있어(남기연, 2014), 시·군·구 범위가 3학년 학생들의 실제 생활 범위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장’과 ‘지역’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고장’이 ‘지역’의 하위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 개념이 사전적으로 비슷한 데다가, ‘충효의 고장, 충청북도’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장이 시·도 범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고장과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오개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조사 및 답사 학습의 적정성이다.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72개 중 성취기준 자체나 해설, 교수·학습 방법에서 조사 학습을 제시한 성취기준은 30개에 달한다. 조사 활동은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3~4학년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질의 자료를 찾는 것에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고, 자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워 의미 있는 조사 학습을 수행하기가 힘들다. 특히 4학년 1학기에서는 중심지, 문화유산, 공공기관을 조사하고 답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데, 이는 교육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더러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주형미 외, 2021). 6학년의 세계지리 학습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조사 활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나라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보다는 겉핥기식의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답사나

조사와 같은 수업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동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중요했다.

넷째, 학습 내용이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주로 4학년의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과 관련되었다. 교사들은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여 지나치게 자세히 가르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삶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인터넷의 발달로 물리적 환경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으며, 촌락과 도시의 경계가 허물어진 사례도 있는데, 해당 성취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촌락과 도시를 구분하면서 그 개념을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오히려 촌락과 도시의 전형성을 부각시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경험하는 실제 촌락과 도시와는 괴리감이 있었고, 촌락과 도시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나타나는 문제로도 이어졌다(심승희, 2022). 이는 3학년의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고장마다 생활 모습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운 지역과 더운 지역의 생활 모습을 정형화된 사례로 묘사하는 것이 현실 상황에 적합한 내용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글로벌 시대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및 관계 깊은 나라를 구분하며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또 해당 국가들만을 배우는 것이 적합하지에 관해 의문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의 지리 전공 교수진과의 자문 회의를 실시하였다. 회의에서는 환경확대법 및 지역화의 문제, 중심지와 도시, 촌락 관련 내용의 접근 방법, 5학년의 국토 내용의 재구성 방안, 조사 및 답사학습을 비롯한 지리 영역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수진은 ‘통합과 관련하여 초등 사회과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주제 중심의 통합보다는 (탄력적)환경확대법에 근거한 틀

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이전부터 초등 사회과의 안정적인 구조라는 측면 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생활 경험을 근거로 통합적인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었다. 또한 3학년 학생들의 생활공간 범위를 고려하여 현재 제시된 내용을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였다. 다만 3학년에서 ‘고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대체 용어로 ‘마을’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중심지와 도시 학습 내용이 중복되어, 두 주제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과 촌락과 도시를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지리 내용의 경우, 국토 관련 내용을 생체 전환 교육과 연계시켜 재편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으며, 세계지리 내용의 경우, ‘이웃 나라와 ‘가까운 나라’의 표현이 어색하고, 구분이 애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2. 교육과정 개발의 주안점

초등 지리 교육과정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을 통합한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등 사회과에서 설정한 개정 방향 및 주안점에 따라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주안점은 학습량 적정화, 현장에 적합한 내용 체계 표 개발, 내용 체계의 범주와 명칭 변경, 시민 교육 강화, 교사의 자율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이자 중점을 둔 부분은 학습량 적정화라고 할 수 있다. 학습량 적정화는 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성취기준 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하였고, 각 성취기준 내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였다(은지용 외, 2022a). 이 과정에서 특히 5~6학년군에서의 성취기준 수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48개였던 성취기준이 27개로 줄어들었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절반 수준이다(표 1).²⁾

표 1.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수

| 교육과정 학년군 | 2015 개정 교육과정 | 2022 개정 교육과정 | | | | | 비고 |
|-------------|-----------------|--------------|----|----|----|-----|-----------|
| | | 지리 | 역사 | 일사 | 통합 | 계 | |
| 3-4학년 | 24개 | 6 | 6 | 6 | 4 | 22개 | 현행 대비 92% |
| 5-6학년 | 48개 | 8 | 8 | 8 | 3 | 27개 | 현행 대비 56%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성취기준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중복으로 제시된 내용 요소를 통합하고, 학생들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하여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때 초등 사회과 내에서의 중복된 내용 뿐 아니라 1, 2학년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과 중복되는 내용 요소들도 고려하여 학년군 및 학교급 간 차별성을 추구하고, 계열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장소감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정착된 내용이나 지도 학습과 같이 지리 학습에 필요한 요소는 유지하면서도, 국토 구분 방법이나 도시 발달, 산업 발달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과 수준에서 문제시되었던 요소들은 내용 수준을 조절하여 학습 요소의 적정화를 꾀하였다.

초등 사회과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면서 초등 지리 영역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공간을 고려하여 탄력적 환경확대법을 적용하였다. 3~4학년군에서는 학습 대상 공간의 범위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우리 지역-여러 지역’으로 구성하고, 5~6학년군의 우리나라-세계를 대상으로 한 학습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는 3학년 ‘고장’(시·군·구)에서 4학년 ‘지역’(시·도) 단위로, 행정구역에 기반을 두어 학습 공간 범위가 확장해 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식을 탈피한 것이다. 즉 자신의 장소 경험에서 시작하여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우리 지역, 여러 지역 사례, 우리나라, 세계로 내용의 범위가 넓어지는 탄력적 환경확대법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장’이라는 용어 대신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간 범위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생활권에 집중하였다. 3학년에서의 경우, 범위를 행정구역으로 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화 수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학생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자료의 활용과 지리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지리적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히 기능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현상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과정의 일부로서 기능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지도 학습에서는 지도의 요소 자체를 학습하기보다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의 지도를 읽는 과정에서 지도 요소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학습에서도 공간 도구, 사진, 도표, 영상, 통계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현상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형, 기후, 인구 등의 특징을 도출해내는 탐구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때,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으로 빈번하게 제시되었던 기능인 ‘조사하기’는 가능한 배제하였다.

셋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강화하였다.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지리적 지식보다는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다 나은 삶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3학년에서는 학생의 시선에서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고, 더 나은 환경을 고민해보면서 일상생활 속의 지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환경 관련 내용을 강조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탐구와 생태 시민으로서 환경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 같이 환경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넷째, 세계시민으로 세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세계지리 내용을 재조직하였다. 한국지리 영역에서 지형, 기후, 인구 순으로 학습되는 내용을 세계지리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지형, 기후, 인구 등을 학습하면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중학교에서의 세계지리 학습을 위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의 기후의 경우, 다양한 기후의 양상을 하나의 기후대로 통합하여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개념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의 특징을 탐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의 인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내용으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 인구 특성을 탐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촌의 다양

한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을 탐색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III.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주요 내용

1.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내용 체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내용 체계 상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단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 중단원을 하나의 대주제로 묶어 제시하지 않고, 각각 별개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단원에 번호를 부여하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식과는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중단원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량 적정화에 따라 성취기준 수 및 내용 요소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표 2에서 비교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비슷한 주제이지만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이 간결해지고 쉬워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일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성취기준 수 조절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지리 영역 주제들이 통합되고, 분산되었다. 해당 단원은 ‘국토의 위치와 영역’,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국토의 자연환경’, ‘국토의 인문환경’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토의 위치와 영역’은 학습 수준과 학습량에 있어 지적되었던 단원으로, 위도, 경도, 국토의 영역이 다른 학년에서 반복되는 점과 전통적인 지역 구분 학습의 어려움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학년에서 다루었던 국토의 위치는 ‘(9)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함께 학습하도록 6학년으로 이동하였다. 우리나라의 위치 학습은 세계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데다가 다른 나라의 위치와 비교하여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과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국토의 지역 구분 관련 내용은 4학년의 ‘(5)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통적인 지역 구분의 내용은 배제하고,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파악하여 우리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학습 수준을 조절하였다. 4학년에서는 여러 지역 및 지역 간의 교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위치 학습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4학년 1학기 첫 단원에 이 내용을 배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3학년에 학습하였던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과 4학년의 ‘도시와 촌락의 생활 모습’은 4학년의 ‘(10)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으로 통합하였다.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에서 산, 들, 바다를 중심으로 환경을 살펴보는 방식은 ‘도시와 촌락의 생활 모습’에서 농촌, 어촌, 산지촌을 구분하는 방식과 유사하였고,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은 2학년 통합교과의 내용과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내용을 실제 여러 사례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을 살펴보고, 환경의 이용과 개발로 인한 변화를 탐색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도시와 촌락의 생활 모습’에서 도시와 촌락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은 도시와 촌락에 관한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며, 학생 수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이 내용은 ‘(9)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알리려는 노력’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를 찾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1)우리나라 국토 여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토의 자연환경’에서 우리나라 지형 특징을 살펴보는 내용과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서의 독도 관련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독도 교육은 국토의 영역 및 지형 학습과 함께 다루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습 내용을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국토의 자연환경’의 학습 내용이었던 우리나라 기후를 ‘(2)우리나라 지리 탐구’ 단원에서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학습하는 내용과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토의 인문환경’에서 다루었던 인구, 도시, 산업, 교통에 관한 학습은 지나치게 일반론적이면서 복잡하고 세부적인 지도 자료를 제시하여 교육학적 재구성이 필요한 주제였다(심승희, 2017). 따라서 ‘(2)우리나라 지리 탐구’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 특징에 집중하고, 인구 분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표 2. 초등학교 「사회」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내용 체계 비교

|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단위명 |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성취기준 단위명 | |
|--------------------------|---------------------------|-----------------------------|--|
| 3~4학년 |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 우리 고장의 모습 | (1) 우리가 사는 곳 |
| | |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 (2)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
| | |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 | (4)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
| |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 (10)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
| | |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 (4)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
| | | 가족의 모습과 역할 변화 | - |
| |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 지역의 위치와 특성 | (5)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
| | |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 (6)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
| | | 지역의 공공 기관과 주민참여 | (8) 민주주의와 자치 |
| |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 (9)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알리는 노력 |
| | |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 (10)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
| | |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 (7) 경제 활동과 지역 간 교류 (3)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
| 소계 | 4개 대단원, 12개 중단원, 24개 성취기준 | 10개 중단원, 22개 성취기준 | |
| 5~6학년 | 1. 국토와 우리 생활 | 국토의 위치와 영역 | (5)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9)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
| | | 국토의 자연환경 | (1) 우리나라 국토 여행 (2) 우리나라 지리 탐구 |
| | | 국토의 인문환경 | (2) 우리나라 지리 탐구 |
| |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 인권을 존중하는 삶 | (3) 법과 인권의 보장 |
| | | 인권 보장과 헌법 | |
| | | 법의 의미와 역할 | |
| | 3.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 나라의 등장과 발전 | (4) 유적과 유물로 살펴본 옛 사람들의 생활 (5) 달라지는 시대, 변화하는 생활 모습 |
| | |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 | |
| | |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 |
| | 4.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 (6) 식민 통치와 저항, 전쟁이 바꾼 사회와 생활 |
| | |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 |
| |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 | |
| | 5.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 (7)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8)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
| | | 일상생활과 민주주의 | |
| | |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 | |
| | 6.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 경제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 (11)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7)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
| | | 경제생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 |
| | |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 |
| |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 (9)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10) 세계의 자연환경 (12) 지구촌 사람들 |
| | |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 | |
| | |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 | |
| |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 (1) 우리나라 국토 여행 (7)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12) 지구촌 사람들 |
| | |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 | |
| | | 지속가능한 지구촌 | |
| 소계 | 8개 대단원, 24개 중단원, 48개 성취기준 | 12개 중단원, 27개 성취기준 | |

출처: 은지용 외, 2022b, 53-55. 재구성

지역 불균형 문제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우리나라 여러 도시나 도시의 특성은 4학년의 ‘(10)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에서 학생 수준에 맞게 사례 도시 중심으로 접근하여 보다 쉽게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중심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내용은 ‘(10)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도시의 여러 기능을 살펴 보면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 단, 학생들에게 개념적으로 혼돈을 줄 수 있는 ‘중심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지역을 파악하는 형태로 흡수되었다.

세계지리 학습은 개정의 주안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내용 구성 방식을 조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이웃 나라, 관계 깊은 나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지리와 같은 주제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10)세계의 자연환경’에서는 세계의 지형과 기후를 다루고, ‘(12)지구촌 사람들’에서는 세계 인구 특징을 다룬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지리를 6학년 2학기에 집중적으로 학습하였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배치 조정에 따라 ‘(9)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 6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으로 이동하였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지리 영역 성취기준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 지리 영역의 성취기준은 3~4학년군 6개, 5~6학년군 8개로 총 14개이다.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내용을 통합한 통합 성취기준의 경우 3~4학년군에서 4개, 5~6학년군에서 3개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이, 초등 사회과 내에서는 성취기준의 수를 영역별로 동등하게 배분하였다.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 성취기준과 통합 성취기준은 표 3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간결하게 서술되었다.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나누어 성취기준을 설명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달리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의 두 가지 형태로만 성취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전과 같이 성취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성취기준 자체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만을 해설과

고려사항에 제시하였다. 특히 초등 사회과에서는 성취기준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서술하여 교사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교과서 집필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사의 전문성에 따른 다양한 사회과 수업을 구현하려는 의도였다(교육부, 2022). 따라서 성취기준 자체에 수업 방법을 제시하거나 괄호를 넣어 그 안에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방식은 지양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3~4학년군 성취기준

[4사01-02]는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리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4사01-01]에서 장소감을 탐색한 후, 해당 성취기준에서 본격적으로 주변의 여러 장소를 살펴보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의 학습 주제는 학생들이 둘러싼 환경이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있는 학습 문제를 설정하여,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자기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학생들이 여러 장소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지리적 탐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송언근, 2002). 따라서 교사나 지자체의 수준에서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학생의 시선에서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3학년 수준에 맞는 탐구 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4사01-02]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놀이·여가, 안전, 교육·문화, 건강·의료 등과 관련 있는 장소를 탐색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6가지 영역⁴⁾에 준하여 선정한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아동친화도시는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조례, 규정 등 행정적인 요소들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단원 학습을 통해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아동친화적 환경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때 아동의 장소감을 아동친화적 환경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므로(신정영, 2018), [4사01-01]의 장소감 학습과 한 단원으로 제시하여 해당 성취기준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3.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지리 및 통합 성취기준

| 학년 | 단원명 | 성취기준 |
|------------|---|--|
| 3 | 우리가 사는 곳 | [4사01-01] 주변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장소감을 나누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
| | | [4사01-02] 주변의 여러 장소를 살펴보고,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안을 탐색한다. |
| |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 [4사04-02]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교통의 변화에 따른 이동과 생활 모습의 변화를 이해한다.(통) [4사04-03]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통신수단의 변화에 따른 정보 교류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설명한다.(통) |
| 4 |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 [4사05-01] 우리 지역을 표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를 찾아보고, 지도의 요소를 이해한다. [4사05-02] 지도에서 우리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 지역의 지리 정보를 탐색한다. |
| | | [4사09-01]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른다.(통) [4사09-02] 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문화, 생산물 등을 알리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알고 관심을 갖는다.(통) |
| |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 [4사10-01]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을 살펴보고, 환경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변화를 탐구한다. [4사10-02] 사례에서 도시의 인구, 교통, 산업 등의 특징을 탐구하고, 도시에서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
| | | 우리나라 국토 여행 |
| 우리나라 지리 탐구 | [6사02-01]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특징을 자료에서 탐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이해한다. [6사02-02] 우리나라의 지역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
| |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 [6사07-01]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 등을 알아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한다.(통) |
| 6 |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 [6사09-01] 세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공간 자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구본과 세계지도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6사09-02] 세계 주요 대륙과 대양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의 특징을 이해한다. |
| | | 세계의 자연환경 |
| | 지구촌 사람들 | |

* 성취기준에 표시된 (통)은 통합 성취기준을 의미함.

[4사04-02]와 [4사04-03]은 통합 성취기준이다. 이제까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가 교통 수단 및 통신 수단의 발달과 일반적인 생활 모습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통로의

발달과 공간 범위의 확대 등의 지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설 및 고려사항에서 영역 통합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5학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교통 발달 과정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성

취기준과 동일시하여 파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사05-01]과 [4사05-02]는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의 지도를 읽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지도 요소를 인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지도를 살펴 보면서 지도 요소와 지역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지도 읽기와 같은 학습 방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학습의 과제와 목표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경원, 2001). [4사05-01]과 [4사05-02]에서의 지역 지도 읽기는 5~6학년에서 우리나라 지도 및 세계 지도를 읽고, 분석하는 데 기초 학습이 되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파악함으로써 4학년 전반에서 다루어지는 지역 학습의 기본이 된다.

[4사10-01]과 [4사10-02]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을 탐색하는 성취기준이다. [4사10-01]과 [4사10-02]에서는 구체적인 지역을 사례로 다양한 환경을 탐구하고, 여러 지역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여러 도시와 촌락을 학습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직접적으로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이분법적 접근은 지양한다. [4사10-01]에서는 환경의 이용과 개발로 달라지는 지역의 모습을 균형 잡힌 관점으로 파악하면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도 탐색할 수 있다. [4사10-02]는 도시의 특징과 생활 모습에 관한 성취 기준으로 기능에 따라 여러 도시를 살펴 보면서 도시의 인구, 교통, 산업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해당 성취기준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도시의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을 조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4학년 수준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장교사의 의견과 [4사09-01]에서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다룬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러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성취기준을 지도할 때에는 여러 사례 도시를 살펴 보면서 도시의 여러 기능과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 5~6학년군 성취기준

[6사01-01]은 우리나라 지형의 분포 특징을 탐구하는 성취기준으로 국토 환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세계지리 주제는 여행을 소재로 다양하게 재구성하여 지도하는 반면, 한국지리 주제는 교과서의 흐름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원명을 우리나라 국토 여행으로 제시하고, 우리나라를 여행하듯이 학습하면서 흥미롭게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을 성취기준 고려사항을 통해 강조하였다.

[6사02-01]과 [6사02-02]는 ‘우리나라 지리 탐구’라는 단원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리적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기후 그래프를 비롯하여 디지털 영상 자료와 지도, 통계 자료,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계절별 기후 특성, 기후 변화, 인구 분포 특징을 탐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6사02-01]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었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후 변화에 관한 관심과 기후 행동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후 차이 내용은 중학교에서 다루는 것으로 학습 범위를 제한 하면서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6사09-02]는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와 영토 특징을 파악하는 성취기준이다. 2015 개정에서는 5학년에서 우리나라 위치, 6학년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학습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 특징을 세계 스케일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위도의 의미와 위치 표현 방법을 성취기준 해설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뿐 아니라 [6사10-02]에서의 세계 기후에 관한 이해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도 유용하다.

[6사10-02]는 세계의 기후를 알아 보면서 기후 환경에 따른 인간 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는 성취기준이다. 기후에 관한 오개념을 줄이기 위해 세계의 기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열대 기후와 온대 기후는 각각 열대 우림, 열대 사바나와 서안 해양성, 지중해성 기후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성취기준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후를 세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학생 수준에서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 세계 기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없어, 6학년에서 선수 학습으로 세계 기후를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각 기후의 특징을 명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기후를 한 가지 특성으로 제한하여 가르치면서 발생하는 일부 내용의 생략이나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후 특성이 분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기후를 설명하면서 생소한 용어와 현상을 암기하도록 지도하기보다는, 위도에 따른 기후 특징을 이해하고 기후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기후 특징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사12-01]는 세계의 인구를 파악하는 주제로 인구 성장, 인구수, 인구 밀도, 인구 구조 등과 같은 주제를 선정하여 세계 인구를 다각도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성취기준이다. 이 성취기준의 내용을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논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의 내용 체계 구성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 감소를 위해, 성취기준의 수를 대폭 줄임으로서 나타난 제한점도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내용 체계의 근간은 탄력적 환경확대법으로써,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이 통합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적 구조 하에, 지리 영역의 내용을 초등학생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가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채택한 환경확대법은 학습대상지역의 범위를 학생 자신의 장소에서부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확대되며,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 사례를 둘러보고, 우리나라, 세계로 나아가도록 한 것이다. 탄력적 환경확대법은 3~4학년에서의 학습대상 범위로써 시·군·구 단위와 시·도 단위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국내 각 지역과 다양한 환경을 포괄하도록 한다. 3~4학년 과정은 학생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학습으로, 5~6학년에서의 우리나라와 세계에 대한 학습은 한국 지리와 세계지리의 지역지리적 접근법을 취하면서, 지형, 기후, 인구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토 환경 및 공간구조에 대한 이해, 생태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며, 다양한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 정보

습득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식·이해를 위한 내용 요소 이외에, 자료의 활용과 지리적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의적 영역의 학습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현장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지역 간 교류, 도시-촌락 간 교류와 같이 영역 간 중복성이 염려되는 부분은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도입된 장소감과 지도 학습은 통합적인 초등 사회과에서 지리 특수적인 내용인면서, 초등학생에게 의미 있는 주제로 여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유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심시 개념 및 적용과 관련된 내용, 도시와 촌락을 이분법적으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주제나 개념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학습량 감소를 위해, 성취기준의 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주제별 계열성을 완결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사회과 지리 영역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일들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정책연구 과정에서 초등 사회과 공동연구진 회의에서는 ‘통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자주 있었다. 이에 사회과에서 진정한 통합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간용(2019)이 독일 초등 교육과정의 개혁과 관련하여 우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의 진정한 통합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바와 같이, 이번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도 통합 사회과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즉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별 성취기준 이외의, 별도의 통합 성취기준을 개발하였지만, 세 영역의 특징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초등 1, 2학년은 통합교과를 학습하고, 사회과는 3~6학년의 내용에 대해서만 성취기준을 개발한다. 현재로서는 1, 2학년의 통합교과 성취기준 개발자들의 대화나 조정은 불가능한 구조인데, 1, 2학년 내용과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있어, 1, 2학년 통합교과의 교육과정과 3~6학년 사회과의 유기적 연계가 요구된다.

연구자들은 초등 지리가 교사와 학생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해 왔다. 초등 교사는 지리 전공자가 아니지만, 초등 지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들은 현장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등 교원 양성기관의 초등 지리 교육의 교수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다. 초등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초등 지리를 교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추가로 필요할지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교사의 교육과정 적용과 교수 준비도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주

- 1)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22일까지 14일간,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91명의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 2) 1차 연구 초반에는 5~6학년군에서 각 영역별로 10개의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3~4학년군 대비 성취기준의 수가 여전히 많아 각 영역별 성취기준 9개, 통합 성취기준 3개, 총 30개로 조정되었다. 2차 연구에서는 추가로 영역별로 1개씩 줄어들어 영역별 8개, 통합 3개, 총 27개로 성취기준 수가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차 연구에서 개발된 성취기준의 통합과 조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성취기준은 세계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문화를 성취기준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세계 지리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 3) 성취기준 배치 과정에서 독도 학습이 지형 학습과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되면서 기후와 인구 주제가 하나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중단원의 제목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인구’와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학습 내용을 나타내는 단원명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두 주제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탐구하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리 탐구’로 명명하고, 성취기준 해설 및 유의사항에서 탐구 내용을 강조하였다.
- 4)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교육 환경, 주거 환경
- 5) 이간용(2019)은 독일 초등 지리교육을 사례로 2004년 초등 「지리」의 표준으로부터 2017/18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추적하고, 통합적 주제를 바탕으로 한 역량 개발을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를 살펴 보면서, 통합 주제 중 지리적 주제의 강세와 독일 지리교육의 강한 전통을 발견하였다.

참고문헌

- 강경원, 2001, “지리 교과와 통합교육적 접근 방안: 초등 사회과 학습 내용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1), 51-66.
- 남기연, 2014,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심상도 특성 분석”, 사회과수업연구, 2(1), 81-104.
- 배주경·박소영·김종윤·김혜숙·도종훈·박윤경·조진형·라재주, 2019a,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모니터링 연구 (II): 초·중학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4-1.
- 배주경·김종윤·김상범·배화순·조윤동·김현정·조기희·장근주·박소영·이승미·김혜숙, 2019b,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1.
- 배주경·김종윤·김상범·배화순·변희현·유금복·임윤진·조기희·장근주·박소영·이승미, 2020, “2015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1.
- 송언근, 2002, “자실적 지리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구성의 논리적 토대: 초등 지리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1), 4-51.
- 신정엽, 2018, “도시지리학 관점에서 아동친화도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7(3), 399-413.
- 심승희, 2017,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초등 사회과 한국지리 단원의 학습 주제 및 내용 개발: 한강을 따라 가는 우리나라 지리 여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5(1), 1-18.
- 심승희, 2022, “초등 지리교육과정에서 촌락과 도시 학습내용의 변화와 개선 방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1-21.
- 은지용 외, 2022a,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용역-2021-17.
- 은지용 외, 2022b,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용역-2022-17.
- 이간용, 2019, “독일의 초등 지리교육과정 변화 특성 및 그 함의 고찰”,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1~17.
- 주형미·김종윤·배화순·변희현·유금복·서지영·장근주·박소영·배주경,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내용의 적정성 분석: 국어, 사회, 영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6-1.
- 주형미·박진용·김상범·김현미·변희현·임윤진·서지영·이경언·박소영·배주경, 2021,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

정 개선방안 탐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영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1-6-1.

- Gersmehl, P.J. and Gersmehl, C.A., 2007, Spatial thinking by young children: Neurologic evidence for early development and “educability”, *Journal of Geography*, 106(5), 181-191.
- Martin, P., 2013, What is geography’s place in the primary school curriculum?, in eds., Lambert, D., and Jones, M., *Debates in Geography Education*, Routledge, 17-28..

접 수 일 : 2023. 02. 11

수 정 일 : 2023. 02. 24

게재확정일 : 2023. 02. 24

교신: 유수진, (0769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6길 23
(내발산동), 서울내발산초등학교 교사
(sj0701@sen.go.kr, 02-3662-7565)

Correspondence: Soojin Yoo, sj0701@sen.go.kr